



배포 일시	2022. 8. 31.(수)		
담당 부서 〈총괄〉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 안진애 (044-201-3526)
	해외건설지원과	담당자	사무관 정승훈 (044-201-3527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GICC 2022 개최, 기업 수주지원 등 인프라 외교성과

- 장관·CEO 포럼, 8개국 고위급 면담 등 인프라 외교활동 -
- 사우디 네옴, 인니 신수도 등 우리기업 관심사업 설명회 개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8월 30일(화)~31일(수) 서울 신라호텔에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GICC(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) 행사를 개최하여, 장관·CEO포럼, 고위급 면담 등 인프라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.
- 사우디 네옴, 인니 수도이전 등 주요 사업 특별 세션, 해외 발주처가 참석하는 프로젝트 설명회 및 1:1 기업 상담회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.
 - * 사우디 네옴 협력회의,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포럼, 스마트건설포럼 등 특별세션
 - ** MDB세미나, OAD세미나. 프로젝트 설명회(12건), 기업 1:1 상담(65건) 등 추진
- 첫째 날(8.30) 개최된 개막식에는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희룡 장관의 환영사와, 인도네시아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청 장관, 김정재 국회의원,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의 축하연설이 진행되었다.
-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축사를 통해 “우리 기업들은 지난 1965년 해외 건설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래 리비아 대수로 공사(1983),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(1994),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(2010) 등 세계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

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**각국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였다**” 면서,

- “앞으로는 전통적으로 수주해온 철도와 공항, 도시개발 등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, 반도체와 통신, 문화를 아우르는 **K-스마트 인프라를 도시와 삶,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종합적으로 수출하기** 위해 한국기업과 정부는 민관협력의 **팀코리아**로 한 팀이 되어 세계 각국에 **K-스마트 인프라를 세일즈할 것**” 이라고 밝혔다.
- 또한,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는 창조연설에서 “**도시는 창조의 집합체로 문화를 담는 공간**” 이고, “앞으로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구축되는 도시를 만들어 인류의 헤리티지를 남겨야 할 것”이라며, “**K-컬처의 소프트 파워와 건설이 반드시 융합되어 미래의 생활문화 생태계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**” 라고 말했다.

□ 올해 처음으로 열린 **장관·CEO포럼**에는 **인도네시아** 신수도청 장관, **파나마** 공공사업부 장관, **사우디** NEOM 최고투자책임자 등 **9개국 주요 인사**가 참석하였다.

* (9개국) 인니 신수도청 장관, 라오스 기획투자부 장관,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, 우즈벡 주택공공서비스부 차관, 방글라 민관협력청장,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부청장, 페루 도시교통청장, 탄자니아 철도공사 사장, 사우디 네옴 최고투자책임자

-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최신 글로벌 인프라 화두로 제기되는 **친환경 인프라협력방안**(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)과 **민관 해외건설 협력방안**(이강훈 KIND 사장)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**각국의 현안 및 비전**을 공유하였다.
-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“세계 각국이 처한 환경과 가지고 있는 자원은 다르더라도, **친환경 인프라 협력과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전세계의 공통적으로 중요한 어젠다(agenda)**” 라며, “**금일 논의한 각국의 사례와 협력방향이 향후 상호 간의 인프라 협력에 유익하게 활용될 것**” 이라고 덧붙였다.

- 또한 8.30일~31일간 총 8개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(장관급 면담 3건, 차관급 면담 5건)들과 릴레이로 진행된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심사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.

【 고위급 양자면담 】 * 상세내역 별첨

일시	면담자	면담 상대자
'22.8.30(화)	원희룡 장관	•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장관
		•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
	이원재 제1차관	• 라오스 기획투자부 장관, 공공교통사업부 장관
		•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부청장
'22.8.31(수)	어명소 제2차관	•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장
		•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서비스부 차관
		• 페루 도시교통청장, 국가도로청장
		• 카타르 자치행정부 차관보

- 아울러, 이번 고위급 면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(World Expo) 유치 지지를 요청하여 지지 기반을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.
- 특히, 8월 30일(화) 오전 별도 세션으로 추진된 네옴 협력회의에서는 네옴의 최고투자책임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네옴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고 한국정부·기업의 참여와 협력가능성 등 관심사항을 논의하며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였다.
 - 마나르 알-모니프 네옴 최고투자책임자는 네옴 사업의 추진현황, 계획 그리고 세부사업(더 라인, 트로제나, 옥사곤)에 대해 발표하면서,
 - “네옴시티는 새롭게 지어진 도시로 미래지향적,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며, 향후 90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될 것” 이라고 밝히며,
 - “네옴은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으로 사우디 정부 재원 이외에도 다양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며, 친환경 도시를 위해 태양광, 풍력 발전, 해상발전, 원자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희망한다” 라고 말했다.

- 우리 기업들도 네움 사업의 친환경에너지 활용, 재원확보방안 등을 비롯한 향후계획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며,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.
 - 원 장관도 “네움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” 고 네움 측에 감사를 표하면서, “역량있는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핵심 프로젝트인 네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- 8월 31일(수) 오전에 진행된 인도네시아 신수도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실행계획 및 계획,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험 및 시사점 등 상호 관심사항을 공유함으로써, 양국 간 협력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, 신도시 개발에 있어 한국기업의 우수성도 적극 홍보하였다.
-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“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경제, 사회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신수도 개발 분야에서도 정책자문 및 사업 컨설팅 등을 시행해 왔으며, 이번 포럼을 인도네시아 신수도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양국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” 고 밝혔다.
 - 본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밤방 수산토노 장관이 직접 신수도 정책에 대해서 주제 발표하는 등 신수도 개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관계자와 관련기업 간 대면으로 신수도 개발과 관련하여 상세히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.
 - 또한, 주제발표에 이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, 행복청, KIND, 국토연구원, LH, 대우건설,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가 패널토론을 통해 신수도 관련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, 자금사항을 해소하는 등 향후 신수도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이외에도, MDB세미나, ODA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주요 국가의 트렌드와 발주 정보 및 투자방안, 국토교통 ODA정책 등을 공유하고, 각국 주요 발주처(12개)의 프로젝트 설명회와 함께, 우리기업과 1:1 상담 연계를 통해 주요 발주처와 우리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 지원하였다

-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“ ‘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GICC 행사가 올해 10회째를 맞이하였으며, 코로나-19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하는 만큼 기업수요에 맞추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” 고 설명하면서,
 - “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포럼과 양자면담 등을 통해 네옴·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핵심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, 앞으로도 글로벌 인프라 외교를 확대하여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면담 주요내용

○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장관(밤방 수산토노, Bambang Susantono)

-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관련 지난 7월 한-인니 정상회담에서 수도이전 협력 개정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
- 건설뿐만 아니라 IT에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이 향후 신수도 개발에 다양한 역할 등 참여를 희망하고 신수도청과도 협력강화 기대

○ 파나마 공공사업부 장관(라파엘 호세 사봉헤 빌라르, Rafael Jose Sabonge Vilar)

- 한국기업들이 참여 중인 **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***은 파나마의 최대 메가 프로젝트로서 메트로 5호선 등 후속사업에서도 협력 확대 기대

* (사업개요) 총 연장 26.7km의 복선 모노레일 지상철, 14개 역사 건설, (사업비) 25억불, (사업기간) 54개월('21.2월 착공), (시공사) 현대건설·포스코건설·현대ENG

- 파나마는 향후 활발히 입찰예정인 **민관협력사업(PPP)**에 많은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하며, 금융조달, 타당성조사, 교통인프라 분야 지식·경험 공유 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 진행 희망

○ 라오스 기획투자부 장관(감젠 봉포시, Khamjane Vongphosy), 공공교통사업부 장관(위엥싸왓 씨판던, Viengsavath Siphandone)

- 루앙프라방 공항 확장·개선 투자개발사업(PPP)의 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인 한국공항공사가 향후 개발사업에도 참여를 검토 중, 협력 기대

* (루앙프라방 공항개발)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 라오스 루앙프라방공항 확장·개선·운영 PPP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중('21.12~'22.12)

②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면담 주요내용

○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부청장(추아 총 켝, Chua Chong Kheng)

- 금년 하반기 발주 예정인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 2단계(14km) 건설 및 전동차 납품에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기업의 참여방안 논의

* 1단계 사업 우리기업 참여중(15.6억불 규모, 삼성, 대우·동아지질, 동아지질, 엘티삼보), 2단계 건설(14km, 44억불, 단계별 입찰예정)

○ 방글라 민관협력청 청장(무함마드 이브라힘, Muhammad Ibrahim)

- '19년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과 KIND(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) 간 인프라 공동협의체를 구축한 이후 5건의 대형 협력사업*을 발굴

* 다카-마이멘싱 고속도로(5억불), 다카 순환철도(85억불), 400KM 송전선로(2억불), 메그나 교량(10억불), 푸바찰 배전선로(7억불)

- 발굴된 협력사업은 한국기업이 우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사업화를 추진 중으로 사업착수 등 실질적 협력성과를 거두기를 희망

○ 우즈벡 주택공공서비스부 차관(사이프나자로프 사히브 이스마일로비치, SAIFNAZAROV Sahib Ismailovich)

- 다자개발은행 재원으로 추진되는 우즈벡 3개주(부하라, 카슈카달아주, 나망간주) 상하수도사업의 구체적인 정보 공유 요청

- '20년 우즈벡 상하수도공사의 요청으로 우리기업이 검토중인 타슈켄트시 하수처리시설 PPP사업* 협력방안 논의

* 사업비/기간/구조 : 약 3억불 / 건설3년 + 운영30년 / AP방식(Availability Payment)

- ODA,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 강화 논의

③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면담 주요내용

○ 페루 도시교통청 청장(마리아 에스페란사 하라 리스코, María Esperanza Jara Risco), 국가도로청 청장(루피노 갈린도 까로, Rufino Galindo Caro)

- 페루에서 추진 검토 중인 리마 메트로 신설사업 등에 한국기업 참여 방안, 기술협력·인적교류 등 양국 협력 지속방안 논의
- 페루 정부가 발주 예정인 도로정비를 위한 건설사업관리(PMO) 정부간 (G2G) 계약사업에 대해 한국기업들의 도로 기술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을 소개하고 양국간 도로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

* 발주처 : 국가도로청 / 총 214km, 3개 구간 / 총공사비 : 약 3억불(3천6백억원) / PMO 용역비 150억원 추정 / '22.9~12월 PMO 사업자 선정 예정

○ 카타르 자치행정부 차관보(만수르 빈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마흐무드, MANSOOR ABDULLA Z ALMAHMOUD)

- '15년 이후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샤크 크로싱(해상교량 사업) 등 우리기업 주요 관심사업 및 주요 인프라 개발계획 등 협력방안 논의

* 하마드 국제공항과 도하 북부를 해상으로 연결(교량 3개, 침매터널 1개) / 사업비 120억불 추정

- 양국간 건설 인프라분야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위해 카타르 자치행정부 소속 공공사업청 직원 대상 매년 초청 연수과정 운영 중, 금년 10월 연수과정 재개 등 교류 활성화 논의